

브라질 면

브라질의 면화는 16세기부터 동북부인 마라냐(Maranhao)주, 피아우이(Piaui)주 바이아(Bahia)주 등지에서 재배가 시작되어 1825년에는 브라질 수출품의 30%를 차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브라질의 이때의 면화는 다년초의 면화였었다. 이 면화의 솜 봉오리를 코튼 볼(Cotton Boll=브라질에서는 사과라는 뜻)이라 하였고, 하나의 봉오리엔 3-5 개의 캡슐이 달리며 한 캡슐에 6-7 개의 면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면화였다. 그러나 1880년부터 미국 면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브라질의 면화산업은 일시적으로 쇠퇴하였다.

그 후 품종의 개량, 재배기술의 발전 등으로 2011/12년도에는 중국, 인도, 미국,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5번째 주요 면화 생산국이 되었다. 위의 다섯 개 나라의 면화 생산량(20,796천 톤, 11/12)만 하여도 전 세계 면화 생산량(26,814천 톤, 11/12)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브라질 주 면화 생산지는 중서부로서 마투 그로수(Mato Grosso),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 고이아스(Goias) 주 등으로서 전 브라질 면화 재배지역의 65%를 차지하며, 마투 그로수주 한 군데에서 생산되는 면화만으로도 전 브라질 면화 생산량의 50%를 넘는다.

원래 브라질은 세계 제 2의 면화 수입국이었으나, 자금자족이 실현되어 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가령 2005년도 브라질의 원면 생산량은 1,298천 톤이었고, 이중 816천 톤이 위에서 지정한 중서부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중서부의 다소 동쪽에 위치한 바이아(Bahia) 주의 생산량 증가도 괄목할 만하며, 2001년도 생산량 68천 톤이 2005년에는 317천 톤으로 약 5배가 늘어났다.

단위 헥타르 당 면화 생산량은 관개설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재배방법으로는 세계 제 1의 수확량을 올리고 있다. 가령 1995년 1 헥타르 당 면화 생산량(면실 포함)이 722 kg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2,855 kg로, 그리고 2005년에는 3,300 kg로 획기적으로 늘어났으며, 2006년도 마투 그로수 주에서는 1.5백만 톤을 생산하여 단위 헥타르 당 수확량도 3,600 kg로 세

계 제 1위를 기록하였다.

브라질의 면화재배는 이러한 고능률 시스템에다 철저한 기계화 농업, 품질의 꾸준한 개량, 기술의 혁신정책을 통하여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어, 앞으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 면화수출 양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면방업계에서도 최근 브라질 면화의 수입이 늘고 있음은 관심 있는 일이다.

♣(공석봉)

